지상백고좌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 대원 대종사**

“마음자리 닦는 것이 본업…본업으로 살라”

선불장(選佛場),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라는 말로 사찰의 승당이나 선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충남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에도 ‘선불장’ 현판이 큼직하게 걸려 있다. 부처를 선발하는 곳, 오등선원을 이끄는 선지식이 선원의 조실이자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학산 대원 대종사다.

학림사 오등선원은 대원 스님이 1986년 옛 제석사의 터에 건립한 사찰이다. 10여 년 후 학림사 내에 오등선원을 세워 가람의 격을 갖추었고, 선원의 개원과 아울러 대원 스님을 조실로 추대했다.

2001년에는 오등시민선원을 건립해 일반 불자들도 정진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충남지역 불교의 중요한 사찰로, 또 참선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행도량인 만큼 학림사에 들어서면 ‘이뭣고’를 새긴 커다란 돌이 눈에 들어온다. 그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뭣고’를 생각하게 된다. ‘이뭣고’ 아래에는 ‘화두일념’이라고 새겨져 있다. 공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두석이 먼저 일갈한다.

찾아뵌 대원 스님의 거처는 좁고 소박하다. 먼저 엄동설한의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근황을 여쭈었다.

“24시간 365일 정진하는 도량이라 그것에 매진하다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 줄 몰라요. 용맹정진하는 도량이라 매주 철야정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요.”

대원 스님은 여든이 넘은 노령이지만 요즘도 학림사 오등선원서 여름과 겨울, 여섯 달의 안거 때마다 방부(房付)를 들인 후학들과 똑같이 용맹정진을 한다. 노구임에도 구도 열정 만큼은 아직도 ‘현역’이다.



학산 대원 대종사는…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상주 남장사로 출가해 1958년에 사미계를, 1962년에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일대시교를 이수한 뒤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 받았으며, 21년간 제방선원을 다니며 효봉 · 동산 · 고암 · 경봉 · 전강 · 향곡 · 성철 · 구산 ·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2001년에는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해 간화선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2014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았으며, 조계종 원로의장을 지냈다. 법어집으로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와 〈진흙속에서 달이 뜨네〉 등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강설집 〈조주록 강설〉을 펴냈다.

누구나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

대원 스님에게 법을 청하니 “우리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여기 선불장에는 문턱이 없다”며 “화두를 열심히 참구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방편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말머리를 열었다.

“불교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심(佛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 설법하신 것은 불심 즉 부처의 마음자리를 설하셨어요. 누구나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부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꽉 닫힌 철통같은 사람이요, 아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은 탐진치 삼독에 대한 마음, 칠정(七情)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전쟁하고 살생하고 불행한 일을 자초해서 겪고 있다는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중생심의 결과라는 것이다.

“자신의 의식을 바로 보면 불성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성이 곧 불심인데 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불심은 무엇일까? 대자비, 대지혜, 대광명의 마음, 대만족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곧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편안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합니다. 큰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목마르다 말하지 말고,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고프다고 말하지 말라!”

佛心으로 행하고 사는 게 ‘불교’

부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
대자비, 대지혜의 마음이 ‘불심’
불심을 아는 자, 눈이 열린 사람

2016년 하안거부터 ‘조주록’ 강설
6년 동안 525칙 공안을 전부 설해
“뜰 앞의 잣나무엔 아무 의미 없다
선사의 의지를 바로 보는 것이 禪”

될성부른 나무였던 대종사

스님의 소참 법문을 듣고, 출가 이야기를 청했다. 선지식의 출가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발심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원 스님은 남장사에서 당대 선지식인 고암 스님을 은사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했다. 대원 스님은 행자시절부터 ‘대근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또렷한 선기(禪氣)를 보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어요.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아 밥을 굶기도 했어요. 매번 밥을 태워서 어른스님께 야단도 많이 맞았지요. 밥이 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염불했는데, 어느날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때다가 홀연히 깨달음이 있었어요. 5년 동안 행자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중생심이 녹아 없어졌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지요.”

스님은 배움의 자리에서는 어떤 고초가 있어도 참고 공부했다.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 대구 동화사, 문경 김룡사, 범어사, 해인사, 송광사, 월내 관음사, 불국사, 지리산 칠불암, 통도사 극락암, 쌍계사 금당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21년간 안거했다. 전강 스님, 성철 스님, 향곡 스님을 비롯해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참문(慘聞)하고 법거량을 했다.

그 과정에서 1966년 남장사 혼해 스님 문하에서 두 번째 오도를 했다. 은사인 고암 스님을 대각사에서 뵙고 ‘뜰 앞의 잣나무’ 화두를 계속 들었다. 고암 스님이 해인사 방장으로 계실 때 ‘뜰 앞의 잣나무’ 화두를 타파하고 3번째로 오도했다. 당시 지어 바친 오도송으로 고암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인가하고 학산(鶴山)이라는 법호와 전법게를 내렸다. 고암 스님에게 올린 오도송은 이와 같다.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 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忽聞栢頭手放語)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廓然銷覺疑團處)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明月獨老淸風新)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凜凜闊步毘盧頂)

〈조주록 강설〉, 간화선 진수 담다

이야기는 대원 스님의 출가담에서 간화선에 대한 강설로 이어졌다. 특히 스님은 〈조주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주록〉은 당나라의 선지식 조주 선사(778~897)의 어록으로, 불자라면 들어봤을 ‘개에겐 불성이 없다’ ‘뜰 앞의 잣나무’ 등 숱한 화두들이 담겼다.

대원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선수행에 대한 바른 안목을 심어주기 위해 〈조주록〉 강설을 2016년 하안거부터 시작해 6년 동안 283회의 법회를 통해 〈조주록〉 525칙의 공안을 전부 강설했다. 6년 동안 행한 법문을 2023년 〈조주록 강설〉 상·하 편으로 발간했는데, 이 책을 두고 공부인들은 간화선의 진수가 담겨있다고 극찬한다.

스님은 〈조주록〉 17칙에 대해 강설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께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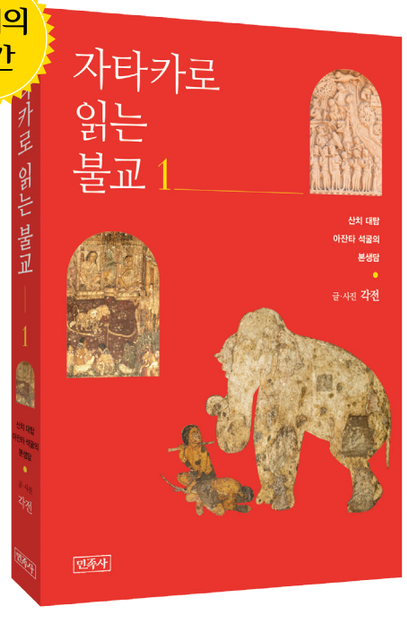
“법에는 특별한 법이 없다 하셨는데, 어떤 것이 법입니까?”

“바깥도 공(空)하고 안도 공하고, 안팎이 모두 공하다.”

13면에 계속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화제의 신간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